

최근 글로벌 ETF로의 자금유입 증가

- 최근 투자자들은 2011년의 저조한 투자성과를 만회하기 위해 ETF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킴에 따라 ETF로의 자금유입은 2012년 1분기 최고 수준을 기록하여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심리가 향상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음
- 2012년 1분기 ETF 시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의 개선으로 자금유입이 증대할 전망이 많으나, 유로존(eurozone)의 재정위기 채부각과 석유 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상존해있어 당분간 ETF에 대한 투자심리의 변동성이 높을 것이라 분석도 제기됨
- 한편, 시장에서는 ESMA(European Securities Markets Authority)가 ETF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1월에 발표한 의견수렴보고서(consultation paper)에 대해 합성 ETF와 단순 ETF 모델 간에 ETF 산업이 구분되어지는 것을 전반적으로 용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최근 투자자들은 2011년의 저조한 투자성과를 만회하기 위해 ETF(Exchange-Traded Fund)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킴에 따라 ETF로의 자금유입은 2012년 1분기 최고 수준을 기록하여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심리가 향상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음
 - ETF 시장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성향 강화에 따른 현금보유 확대로 인해 2011년 저조한 성과를 보인 이후 2012년부터 자금유입액이 증대되고 있음
 - Blackrock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분기 ETPs(Exchange-Traded Products)로의 신규 자금유입액은 673억 달러에 달함
 - 이는 2011년 1분기 420억 달러에 비해 57% 상승한 수치이며, 2011년 4분기 448억 달러에 비해 50% 증가한 수준임
 - 2011년 ETF 시장은 일부 ETF 제공업체들이 30% 이상의 성장률을 전망하였으나, 실제 성장률이 4% 수준에 그침
 - Morningstar에 따르면, 2011년 ETF 시장은 그리스 재정위기, 일본의 대지진 및 합성 ETF(synthetic ETF)대 단순 유형의 ETF(physical ETF)에 대한 논란 등으로 불확실성이 심했던 한해임
 - 최근 ETF로의 자금유입 증대는 새로운 투자기회 확보 차원에서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음
 - Blackrock에 따르면, 각종 경제지표의 예상외 호전은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과 ETF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하고 있음



- 2012년 1분기 ETF 시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의 개선으로 자금유입이 증대할 전망이 많으나, 유로존(eurozone)의 재정위기 채부각과 석유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상존해있어 당분간 ETF에 대한 투자심리의 변동성이 높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됨
 - 투자자들은 그리스 재정위기와 같은 불확실성 고조로 인한 2011년의 저조한 투자성과를 만회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구사하거나 2011년 말까지 연기해왔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음
 - ETF Global Insight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1분기 글로벌 ETF 시장은 195개의 ETF가 상장되고, 24개의 ETF가 상장이 폐지되어 3,187개의 ETF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Blackrock은 글로벌 경제전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로존(eurozone)의 우려와 석유가격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몇 달 동안 투자자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최근의 ETF 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증대는 모든 ETF 상품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ETF의 자금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의 전략적인 자산배분의 사례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 대만을 본거지로 하는 ETF 운용회사인 Polaris가 운용하는 대형펀드는 2012년부터 당해 3월 말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유출이 지속되고 있음
 - ETF Global Insight는 ETF로부터의 자금유출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투자자들이 전략상의 이유로 ETF를 이탈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전략적인 자산배분의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함
- 한편, 시장에서는 ESMA(European Securities Markets Authority)가 ETF에 대한 투자자보호와 시장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1월에 발표한 의견수렴보고서(consultation paper)에 대해 합성 ETF와 단순 ETF 모델 간에 ETF 산업이 구분되어지는 것을 전반적으로 용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유럽의 증권 감독당국인 ESMA는 2011년 11월 복잡한 상품인 ETF에 노출된 개인투자자에게 한층 높은 투명성을 제공하고, 관련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률규칙(rules)의 도입을 발표하였음
 - ETF 투자자들은 합성 ETF의 복잡한 구조화 방식과 다양한 ETF 상품의 위험요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ETF 투자를 회피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왔음
 - Fidelity는 합성 ETF와 단순 ETF간의 논란은 시간히비로서, 합성 ETF 또는 단순 ETF의 이진법적인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선택을 독려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투자자들이 각 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과나 두 모델의 혼합된 모델(mixed model)의 차이를 근거로 한 투자를 장려해야한다고 언급함
 - BlackRock은 강화된 요건들이 어떠한 ETF 구조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이 적절히 공시되고 관리되어진다는 것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선임연구원 박태준